

스페인 : 2023년 최저임금 인상과 이를 둘러싼 여러 입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스페인

정인철 (스페인 마드리드자치대학교 현대사학과 박사과정)

■ 머리말

2023년 초 스페인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트랜스법과 최저임금일 것이다. 전자는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고, 후자는 2023년 월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는 방안과 관련한 문제였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에서도 노동자가 법정노동일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을 정하는데,¹⁾ 매년 정부는 가장 대표적인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와 협의한 후 최저임금을 법령으로 규정한다. 스페인의 최저임금(Salario Mínimo Interprofesional)은 전 산업에 걸친 일률적 최저임금을 의미하며, 흔히 줄여서 SMI라고 부른다.

2023년 2월 14일, 스페인 정부는 내각회의를 통해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을 승인했다. 이는 2022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4%에 이르자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사례로 주목된다. 이 글에서는 스페인 최저임금제도의 변천과 성격을 관련법령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1) 한국에 소개된 스페인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 참조.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2022), 『2022년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위원회, pp.103~111.

■ 스페인 최저임금제도

스페인 최저임금은 1963년에 법률로서 처음 규정되었다. 당시 최저임금은 월 1,800페세타, 현재 유로화 가치로는 약 10.8유로였다. 이 시기 최저임금은 직종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었으며 1967년부터 매년 최저임금이 책정되기 시작했다. 1975년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 사후에 스페인이 민주화되면서 CCOO와 UGT 등 노동조합이 합법화되고 노사관계 또한 민주주의 제도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1975~1981년 사이 최저임금은 205% 상승했다. 1980년에는 「노동법(Ley del Estatuto de los Trabajadores)」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입법되면서 직종 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연령별 차등지급이 존재했다.

1986년에 스페인이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은 침체기를 겪었고 1993~1997년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최저임금이 장기적으로 동결되기도 하였다. 1998년 마침내 연령별 차등지급이 폐지되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일률적 최저임금 기준이 마련되었다. 1998년에서 2004년까지 최저임금은 12.62% 상승했다. 2002년 1월 유로존이 출범하면서 통화가 유로화로 바뀐 것은 스페인 입장에서 구매력 상실을 의미했으며, 이는 최저임금에도 영향을 미쳤다. 2008년 금융위기로 촉발된 극심한 경제적 불안정에 시달리던 2009~2016년 사이 최저임금은 겨우 5% 상승했다. 인민당(PP) 출신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시절 마지막 2년 동안 최저임금은 다시 조금씩 상승하여 2017년에는 월 707.7유로, 2018년에는 월 735유로의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다.²⁾

스페인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모든 스페인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에 의한 승진, 개인과 가족의 생활필수품 조달에 필요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스페인 최저임금제도는 이 조항에 기초하고 있다.³⁾

스페인 정부는 「입법 칙령: 2015년 제2호 노동법」 제27조에 의거하여 “가장 대표적인 노

2) 스페인 최저임금 제도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 참조. ABC, “La historia del salario mínimo interprofesional en España”, 2021.9.17.

3) 1978년 제정된 스페인 헌법의 국문번역본은 다음 자료 참조. 헌법재판연구원(2017), 『2017 국가별 법령집: 스페인 헌법·헌법재판소조직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동조합 조직 및 사용자단체와 협의한 후, 매년 a) 소비자 물가지수, b) 평균 국내총생산, c) 국민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몫의 증가, d) 전체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또한 해당 조항에서 언급된 물가지수에 대한 예측이 벗어날 경우 반기별로 최저임금을 검토할 수 있다.⁴⁾

최저임금과 관련한 규정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여금 지급은 법으로 규정된 의무이며 노동자에게 1년에 최소 2회 이상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상여금을 포함하여 1년에 14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은 금전적 보수로 산정되며 현물급여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금의 전액을 삭감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현물급여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주거와 식사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합의하에 총임금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현물을 통한 임금 지급이 가능하다. 셋째, 기간제 노동자와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도 법으로 규정한다. 동일한 사업체에서 노동일이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과 더불어 일요일·공휴일 수당 및 최소 30일의 임금이 해당하는 두 차례 상여금에 대한 비례배분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사용자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47.36유로의 일급을, 2023년에는 최소 51.15유로의 일급을 지급해야 한다. 가사노동자의 경우 특별고용관계를 규정하는 「칙령: 2011년 제1620호」에 의거하여 2022년에는 시간당 7.82유로의 최저임금, 2023년에는 시간당 8.45유로의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⁵⁾

〈표 1〉 및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률은 다소 변화가 크고 2012년과 2013년, 그리고 2021년 상반기에는 경기악화로 최저임금을 동결했지만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자체는 꾸준히 인상되어 왔다. 특히 스페인 총리실이 발표한 [그림 1]에서 음영으로 강조된 부분과 같이 사회노동당(PSOE) 출신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괄목할 만한 최저임금 인상을 현재 연립정부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4) Ministerio de Empleo y Seguridad Social, “Real Decreto Legislativo 2/2015, de 23 de octubre,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l Estatuto de los Trabajadores”, 2015.10.24.

5) 구체적인 최저임금 규정은 다음 칙령의 제3조 참조. Ministerio de Trabajo y Economía Social, “Real Decreto 152/2022, de 22 de febrero, por el que se fija el salario mínimo interprofesional para 2022”, 2022.2.23.

<표 1> 스페인 최저임금 변동 현황(2003~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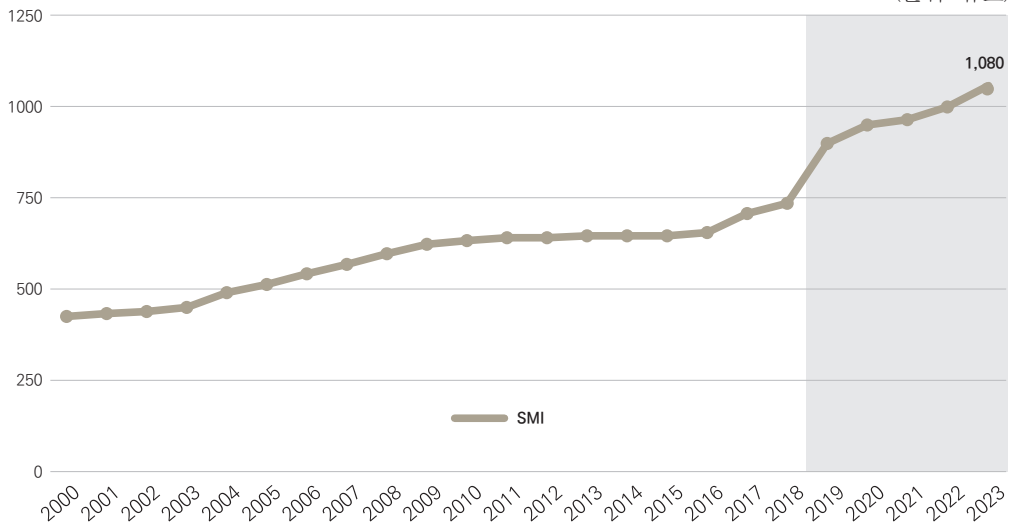
(단위 : 유로)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일급	월급	1~6월		7~12월		일급	월급	일급	월급	일급	월급
15.04	451.2	15.35	460.5	16.36	490.8	17.1	513	18.03	540.9	19.02	570.6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일급	월급	일급	월급	일급	월급	일급	월급	일급	월급	일급	월급
20	600	20.8	624	21.11	641.4	21.38	641.4	21.38	641.4	21.51	645.3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일급	월급	일급	월급	일급	월급	일급	월급	일급	월급	일급	월급
21.51	645.3	21.62	648.6	21.84	655.6	23.59	707.7	24.53	735.9	30	900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일급	월급	1~8월		9~12월		일급	월급	일급	월급		
31.66	950	31.66	950	32.17	965	33.33	1,000	36	1,080		

자료 : Ministerio de Trabajo y Economía Social(2023), “En salario y tiempo de Trabajo”, <https://www.mites.gob.es/> (2023.3.20).

[그림 1] 스페인 월 최저임금 추이(2000~2023년)

(단위 : 유로)



자료 : La Moncloa, “El Gobierno sube el Salario Mínimo Interprofesional un 8%, hasta los 1.080 euros”, 2023.2.14.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각계의 입장

다른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2022년 스페인은 세계적인 에너지 및 식량 가격의 상승으로 고통을 겪었다.⁶⁾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유럽국가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독일은 저소득 노동자의 급여를 전년대비 22.2% 인상했으며, 네덜란드는 12.1%, 포르투갈은 7.8%, 프랑스는 6.6% 인상했다.⁷⁾ 스페인의 최저임금 인상 역시 이러한 유럽 차원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2018년 집권한 사회노동당 정부는 불평등 해소를 핵심 경제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최저임금을 동결시킨 2021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2023년 최저임금 확정을 위해 1월 31일 정부와 노조 대표 사이에 두 차례 회담이 소집되었다. 이 자리에서 올란다 디아스 부총리 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은 양대 노총인 CCOO 및 UGT의 사무총장과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영계를 대표하는 스페인 기업연합회(CEOE)는 출석을 거부했다.⁸⁾

2023년 2월 1일, 스페인 정부는 CCOO, UGT와 함께 최저임금을 1,080유로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동일한 기업체에서 근무기간이 120일을 넘지 않는 기간제 노동자는 법정노동일당 51.15유로의 일급을 받아야 한다. 2월 14일 내각회의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이 최종 승인되었으며,⁹⁾ 다음 날인 15일 부속법령이 관보에 공시되었다.¹⁰⁾ 인상된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가장 큰 불만을 제기한 것은 사용자 측이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6) 스페인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RTVE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인플레이션률은 5.7%이지만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4%로 최근 30년 동안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RTVE, “La inflación cerró 2022 en el 5,7%, pero el precio de los alimentos sigue disparado”, 2023.1.13.

7)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Statutory Minimum Wages, 2023”, 2023.1.20.

8) El País, “El Gobierno acuerda con los sindicatos subir el salario mínimo un 8% hasta los 1.080 euros mensuales”, 2023.1.31.

9) El País, “El Gobierno aprueba una subida del salario mínimo del 8%, hasta los 1.080 euros al mes en 14 pagas”, 2023.2.14.

10) Boletín Oficial del Estado, “Ministerio de Trabajo y Economía Social - Salario mínimo interprofesional”, 2023.2.15.

4% 인상안을 주장하면서,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농업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제안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계약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항의 표시로 CEOE의 안토니오 가라멘디 회장은 최저임금 협상에 불참했다.

한편 최저임금 협상에 참여한 CCOO와 UGT는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처음에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100유로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었다. 최저임금 인상 직후 발간된 CCOO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227만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며 일자리 창출에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적고 오히려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UGT는 최저임금 인상이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페페 알바레스 UGT 사무총장은 협상 후 급여가 낮은 노동자의 구매력을 유지 및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¹¹⁾ 또한 양대 노총 지도부는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경영계를 비판했다.

여론조사기관인 DYM에서 2월 15~19일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¹²⁾ 47.3%의 응답자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회복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31.4%,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자는 17.3%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논쟁적이었다. 약 38.5%의 응답자가 대체로 긍정적일 것이라고 답변했고, 34.7%의 응답자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22.5%의 응답자가 대체로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치성향에 따라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이 좌우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좌파 성향의 포데모스(Unidas Podemos, 긍정평가 77.6%)와 사회노동당(긍정평가 64%) 지지자는 3분의 2 이상이 경제회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우파 성향의 인민당(긍정평가 27.3%)과 극우성향의 폭스(Vox, 긍정평가 25.2%) 지지자는 약 4분의 1만이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11)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CCOO 보고서와 최저임금이 성별 임금격차를 좁히는 효과가 있다는 UGT 보고서는 각각 다음 자료 참조. CCOO(2023), “Análisis del Impacto del Incremento del Salario Mínimo Interprofesional a 1.080 Euros”, [https://www.ccoo.es/\(2023.3.11\)](https://www.ccoo.es/(2023.3.11)); UGT(2022), “La Subida del Salario Mínimo Interprofesional(SMI) acorta la Brecha Salarial entre Mujeres y Hombres”, [https://www.ugt.es/\(2023.3.11\)](https://www.ugt.es/(2023.3.11)).

12) 20 minutos, “Encuesta DYM: Casi la mitad de los españoles cree que la subida del salario mínimo tendrá un efecto positivo para la recuperación económica”, 2023.2.23.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자. 산체스 총리는 노조와 최저임금 인상안을 합의한 날 상원에서의 연설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스페인 가구의 구매력 저하를 언급한 뒤 경영계 및 정치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막대한 혜택과 이익을 얻고도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려는 대기업을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법제화된 2월 14일 디아스 노동부 장관은 CEOE의 협상 불참에 대해 “그들이 대변하는 이데올로기적 논리”에 대해 이해한다며, CEOE 회장을 향해 노조와의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사용자들에게 현재 노동자들의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 맺음말

스페인에서는 경제가 좋지 않다는 여론에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다. 특히 2022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8.4%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는 전년대비 8% 증가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최근 스페인의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 차원의 문제의식, 스페인 정부 정책, 그리고 인간적인 삶 보장에 대한 노동계의 열망이 교차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했더라도 경영계가 협상에 불참하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갈등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학계 논의 역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욱 다각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지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한다. **KLI**